

외국어 교수/학습에 있어서 동작의 중요성*

장한업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동작의 중요성은 매우 오래전부터 알려져왔다. 고대 수사학자들은 이미 목소리와 동작이 매우 중요한 웅변 기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동작은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특히 (동물 행동에 관한) 비교 행동학 *éthologie*, 인류학, 심리학에서 많이 연구되어왔다.

동물 의사 소통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비교 행동학자들의 연구는 동물들 간의 의사 소통이 단지 언어적 수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 수단에도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밝혀주었다(Sebeok, 1977; Marler, 1973; Coulon, 1982). 이런 사실은 20세기 초 일부 인류학자들에 의해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는데, 예를 들어 사피어 E. Sapir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A. Brossard 외, 1984, pp. 3~4에서 재인용):

우리는 마치 비밀스럽고 복잡한, 그리고 그 어디에도 켜어져 있지 않고

* 이 연구는 2001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는 그런 부호에 대해서 반응하듯이 (동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응한다. 동작은 다른 모든 행동처럼 그 유기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동작에 의한 의사 교환의 묵시적인 부호와 동작의 법칙은 복잡한 사회적 전통의 소산이다.

심리학자들은 신체를 매개로 한 심리 치료 요법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는데, 이 요법의 공통점은 신체를 감각과 의미를 지닌 하나의 실체로 본다는 점이다(Cosnier, 1981). 다시 말해 신체 활동을 통해 어느 한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아내고 그 사람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언어학자나 언어 교육학자들은 앞서 언급한 학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늦게서야 동작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이들이 소쉬르 Saussure의 “*langue*”와 촘스키 Chomsky의 “*이상적인 화자와 청자 locuteur-auditeur idéal*”라는 너무나 제한된 관점을 지니고 “순전히 언어학적 왕국 *royaume linguistico-linguistique*”에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언어학자나 언어 교육학자들로 하여금 이 ‘왕국’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에는 방브니스트 Benveniste(1966), 오레키오니 Orecchioni(1980) 등과 같은 발화 행위 언어학자들, 오스틴 Austin(1962), 설 Searle(1969) 등과 같은 언어 행위 언어학자들, 그리고 하임스 Hymes(1972)와 같은 사회 언어학자들의 공헌이 지대하였다. 크게 화용론자와 사회 언어학자로 구분할 수 있는 이들은 언어학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학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언어 사용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준 셈이다. 이렇게 해서 동작은 언어 교육학에 서서히 들어오게 되었고, 이 영역의 가장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의사 소통 능력 *compétence de communication*’ 개념의 부상과 함께 매우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매우 중시되기 시작하였다”란 말은 모든 교수자가 동작의 중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다든가, 동작 교육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직도 많은 교수자들은 자신의 언어 수업에 동작을 왜, 그리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동작이란 무엇인가?' '동작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가?' '동작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분절(分節)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이 논문을 통해 '왜 외국어 수업에서 동작을 가르쳐야 하나?' 하는 첫번째 문제만을 다루어보기로 하겠다. 두번째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한 방법론상의 문제로, 보다 많은 시일과 체계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동작은 외국어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 1) 동작은 현대 언어 교수/학습의 주된 목표인 의사 소통 능력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다;
- 2) 동작은 외국인과 의사 소통을 함에 있어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 소통 전략이다;
- 3) 동작은 그 유희적인 성격과 새로움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2. 의사 소통 능력

모든 외국어 교수/학습은 외국인과—말이나 글을 통한—의사 소통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외국 여행이 점점 용이해짐에 따라 외국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기회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의사 소통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음성과 같은 언어적 수단뿐만 아니라 강세·억양·음색·어속 débit과 같은 준언어적 수단, 그리

고 동작이나 흉내와 같은 비언어적 수단도 점점 중시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원시인과 문명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언어적 수단 중 하나인 동작 중에는 보편적인 동작과 특수한 (또는 관습적인) 동작이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인 희노애락(喜怒哀樂)¹⁾을 나타내는 동작들은 대체로 보편적인 반면에, 게으름·편협함·야비함·현명함 등을 나타내는 동작들은 그것이 사용되는 나라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²⁾

동작의 상대성을 나타내는 예로서 엄지와 검지로 만든 원형(圓形)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먼저, 미국에서 이 원형은 화자의 얼굴 표정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언제나 'OK' '완벽해' '바로 그거야' '동감이야' 등의 의미로 해석된다. 반대로, 프랑스에서 이 동작은 미국에서와 같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뺨점이야' '형편없어' 등과 같이 전혀 상반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동작의 대상이 되는 사람마저도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결국, 프랑스에서 이 동작의 의미는 화자의 얼굴 표정에 달려 있는데, 화자가 미소를 지으며 이 동작을 하면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지만, 얼굴을 찡그리고 입을 삐죽거리면 부정적인

1) P. Ekman은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한 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얼굴 표정의 보편성을 증명하기 위해 이 여섯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사진을, 나이가 다른 여러 나라 여러 인종 남녀에게 보여주었고, 그 결과 이 감정에 대한 인식률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즐거움은 93%, 놀라움은 88%, 역겨움은 83%, 슬픔은 81%, 두려움은 76%, 놀람은 72%, 그리고 화남은 72%의 인식률을 보였다(통계는 N. Paccout, 1991: 92에서 재인용).

2) 본 연구자의 「신체 언어와 외국어——불어 교육」(1999)이라는 논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얻은 바 있다. 이 연구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남자 교사 15명, 여자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Des gestes et des mots pour le dire*(1986)에서 선정한 30개의 동작 그림을 가지고 그 인식률을 조사해본 결과, 우리나라 남녀 불어 교사들은 프랑스인의 신체 언어에 대해 거의 동일한 인식률을 보여주었는데, '한숨짓다' '부정(否定)하다' '당황하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다' '진정하다' '죽이다' '의심하다' 등은 평균 65% 정도로 비교적 높은 인식률을 보인 반면, '맛있다' '아침하다' '첸체하다' '게으르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다' '서투르다' 등은 평균 5% 정도로 매우 낮은 인식률을 보였다. 대체적으로 보아, 높은 인식률을 보여준 동작들은 '생리적으로 유연(有緣)한' 동작이고, 아주 낮은 인식률을 보여준 동작들은 '생리적으로 무연(無緣)한' 동작들이다.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한편, 말트에서 이 동작은 동성 연애를 나타내고, 그리스에서는 그 대상이 여자인 남자든 간에 외설스러움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 동작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원형은 돈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동작은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사용된 화폐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지폐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10년으로,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엽전을 사용하였는데, 이 원형은 바로 엽전의 형태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해석은 돈을 나타내는 서양의 동작과 비교해보면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인다. 프랑스에서 돈을 나타내는 동작은 엄지와 검지를 여러 번 비벼대는 것인데, 이것은 지폐를 세는 동작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동작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불가(佛家)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쓰인다. 불가에서는 엄지와 검지로 만드는 이 원형을 ‘갈마인(羯磨印)’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태양을 나타내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그 빛을 나타낸다고 한다. 나머지 한 손은 대개 하늘을 향해 편 채 단전(丹田) 가까이 내려놓는데 이것은 ‘심무인’이라 부르고, 아무런 근심이 없는 편안한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 두 손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이 동작은 태양과 같이 밝게 빛나는 진리를 깨달으면 아무런 근심이 없는 편안한 마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파쿠N. Paccout(1991: 7)의 지적처럼 의사 소통 시 단어는 7%만의 역할을, 억양은 38%의 역할을, 그리고 동작은 55%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외국인과의 의사 소통에서도 최소한 그 정도의 비중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명백해 보인다: 성공적인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언어 능력 *compétence linguistique*과 문화 능력 *compétence culturelle*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동작을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사용하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G. Calbris, L. Porcher, 1989: 9)으로 정의되는 동작 능력

compétence gestuelle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 동작 능력은 최근 들어 의사 소통 능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사 소통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뷔츠바흐M. Butzbach와 팡당스M. Pendanx(1990: 48~51)는 이 능력을 다섯 개의 구성 요소/능력³⁾으로 나눈 다음, 동작을 그 '기호 언어학적 구성 요소/능력'에다 분류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갈리송R. Galisson(1990: 114)은 자신이 주창한 "언어-문화 교수/교육학Didactologie/Didactique des Langues et des Cultures"의 구성 영역으로 "명분론Déontologie" "내용론Programmologie" "방법론Méthodologie"을 설정한 다음, 그 "내용론"의 3대 요소로 언어와 문화와 더불어 "동작corporalité"을 꼽고 있다.

이처럼 동작은 현대 외국어 교수/학습의 핵심 개념인 의사 소통 능력의 주요 구성 요소로 부상하였고, 언어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3. 의사 소통 전략

외국인과 대화를 나눌 때——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언어로 말하게 된다. 이 경우 외국인은 불완전하나마 자신의 외국어 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 들고, 원어민은 자신의 언어 표현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제한해서 말하

3) 이 두 사람은 의사 소통 능력을 기호 언어학적 구성 요소/능력, 지시적 구성 요소/능력, 담화-문맥적 구성 요소/능력, 사회-화용론적 구성 요소/능력, 민족 사회문화적 구성 요소/능력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호 언어학적 구성 요소/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음운론적/음성학적, 어휘 의미론적 그리고 문법적 기능 작용 등 협의의) 언어뿐만 아니라, 구어에서는 동작과 흉내, 문어에서는 철자와 구두법과 같이 언어 활동에 (어느 정도 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다른 유의미한 체계들에 관련된 지식, 지행 그리고 (인상, 태도 등의) 표현을 총괄하는 능력이다”(강조는 본 연구자에 의한).

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유형의 상호 활동은 일종의 이질(異質) 언어 상호 활동interaction exolingue이다. 알베르J.L. Alber와 뷔B. Py(1984: 153)에 따르면, 이 이질 언어 상호 활동은 “대화자 개개인의 언어적 목록이 상당히 차이”날 때의 상호 활동으로, 그 차이가 전혀 없는 동질(同質) 언어 상호 활동interaction endolingue과 구별된다. 그런데 실제 언어 생활을 살펴 보면 이 ‘차이’라는 것은 전적(全的)일 수도 없고 전무(全無)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두 유형의 상호 활동은 연속적인 변화 선상의 극점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주어진 상호 작용이 동질 언어 상호 작용에 가까우면 그 차이는 무시해도 괜찮지만, 이질 언어 상호 작용에 가까우면 그 차이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대화자들 간의 언어 능력상 차이가 있을 때, 대화자들은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수단을 총칭하여 흔히 “의사 소통 전략stratégies de communication”이라고 부른다. 페르치C. Faerch와 카스퍼G. Kasper(1980: 18)에 따르면, 이 전략은 “주어진 의사 소통 목표에 도달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개인이 사용하는 어느 정도는 의식적인 계획들”로서, 예를 들어 (waterpipe 대신에 pipe라고 하는 것처럼) 단축된 단어를 사용하거나, (balloon 대신에 airball이라고 하는 것처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거나, (She is, uh, smoking something. I don't know what's its name. That's, uh, Persian, and we use in Turkey, a lot of……라고 하는 것처럼) 잘 모르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그 사물이나 행동의 구성 요소나 특징을 기술(記述)하거나, (They toast one another 대신에 He invites him to drink라고 하는 것처럼) 모국어로부터 글자 그대로 번역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What is this?라고 말하여) 원어민 상대방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런 전략에 속한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자는 그 대화를 포기하거나 아예 다른 주제로 바꾸어버리는데, 바로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applaudir라는 단어 대신에 두 손으

로 박수를 치는 것과 같은) 동작의 사용이다.

그렇다면 동작의 기능들 중에서 외국어 교수/학습에 특별히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 주지하다시피, 동작은 여러 가지 기능⁴⁾을 수행하는데, 외국어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기능은 '상징 *emblème*' 기능인 것 같다. 이 기능은 검지와 중지로 만들어 보이는 승리의 V자나 무임 승차를 요청할 때 치켜드는 엄지를 생각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동작들의 의미, 즉 '승리'나 '무임 승차'는 언어 기호가 아니라 비언어 기호인 동작에 의해서 직접 나타내어진다. 대개 이런 유형의 동작은 같은 언어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가 '일의적 *univoque*'이며 '분별적 *discret*'이다. 문제는 엄지와 검지로 만든 원형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 상징 동작 역시 나라마다 상이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한 나라 또는 한 사회 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해석할 정도로 '일의적'이지만,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사회에서는 다분히 자의적(恣意的)이어서, 마치 외국어 단어나 표현을 하나하나 배우듯이 이런 동작 역시 따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화자의 언어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원어민과의 의사 소통은 어려워지며, 그러면 그럴수록 동작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점에서 동작은 매우 중요한 의사 소통 전략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4) 동작은 상징 기능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a) 예시 *illustrateur*: 이 유형의 동작은 ('두 사람' 또는 '이름'이라는 의미로 검지와 중지 두 개를 치켜드는 동작과 같이) 언어 기호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언어 기호를 예시하는 기능을 한다.
- b) 조절 *régulateur*: 이 유형의 동작은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이나 손가락을 치켜드는 동작과 같이) 대화자들 간의 의사 교환을 구성하고 구조화하는 기능을 한다.
- c) 적응 *adaptateur*: 이 유형의 동작은 (눈물을 닦기 위해 눈가를 문지르는 동작과 같이)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그것은 해석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때로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만 한다.

4. 동기 부여 motivation

학습자의 동기는 모든 교수/학습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다른 과목과는 달리 학습자 개개인의 부단한 노력과 많은 시간 투자를 요구하는 외국어 교수/학습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다. 자코보비츠 L. A. Jakobovits(1970)는 외국어 학습의 성패 요인에 관한 많은 미국 언어 심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본 바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동기는 33%, 재능(aptitude, 33%)만큼이나 중요한 요인이며, 지능(intelligence, 20%)이나 성별, 나이 등과 같은 기타 요인들(14%)보다 훨씬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비록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없지만, 우리나라 학습자와 (교사 연수 중인)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자의 교육적 경험에 의하면, 동작 교육과 외국어 교수/학습의 동기 사이에는 분명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이론보다는 실체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데, 외국어 수업 역시 그 예외는 아니다. 학습자들은 단어 철자를 외우기보다는 그 단어를 실제로 발음해보는 것을 선호하며, 문장을 문법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문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글 써보기를 선호한다.

만약 동작이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대체로 보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 기인하는 것 같다. 첫째,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일부분을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일종의 유희적(遊戱的)인 활동으로 교과서와 같이 단순한 매체에 지루해진 학습자에게 적잖은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동작을 하기 위해 학습자가 사용하는 신체 부위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것이므로 학습자는 그 동작을 함에 있어 심리적으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셋째, 원어민의 동작을 배우다 보면 그 동작이 새롭거나 신기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새로움 또한 학습자의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소형 동작 사전인 *Des gestes et des mots pour le dire*(1986)에서 선정한 30개의 동작 그림을 100명의 한국 고등학생에게 제시한 다음 그 의미를 물어보았을 때, 학생들은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또 이 알아맞히기 활동 다음에, 'Du calme' 'Doucement' 'Ça y est' 등과 같은 해당하는 표현과 함께 프랑스인의 동작을 가르쳐보았는데, 그때 반응 역시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5. 언어 교육학적 고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동작은 외국어 교수/학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몽트레돈 J. Montredon, 칼브리스 G. Calbris, 포흐세 L. Porcher 등과 같은 많은 언어 교육학자들은 약 20년 전부터 동작 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이론 체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연구 결과 중에서 동작 교육에 관련된 언어 교수자의 입장과 역할을 요약,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칼브리스와 포흐세(1989)에 따르면, 언어 교육학은 이론과 실제 사이의 변증법적인 행동 양식이다. 다시 말해 언어 교육학은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주어진 교수/학습 여건에 따라 이 이론적 지식을 적용하는 지식도 요구한다. 따라서 언어 교육학자는 어떤 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와 일선 교수자의 중개인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런 입장은 동작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언어 교육학자는 동작학자 *gestualiste*와 일선 교수자 사이의 중개인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중개인으로서의 언어 교육학자는 동작 교육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 역할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 1) 한 사회와 한 개인의 동작 체계를 알아내는 데 필요한 분석 이론과 도구를 일선 교수자에게 제공하는 일;
- 2) 언어 교수/학습에서 언어와 동작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이론적 배경을 교수자에게 제공하는 일;
- 3) 외국인과의 대화 시 생길 수 있는 동작 오류의 목록을 만들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교정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안하는 일;
- 4) 교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전 연수 formation initiale와 직후 연수 formation continue에 동작 교육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설정하는 일 (외국 언어와 문화와 마찬가지로 외국 동작 역시 결국은 교수자를 통해서 학습자에게 전달된다는 의미에서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 이런 교육 과정을 포함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 5) 교과서 · 사전 · 참고서 · 보충 자료 등과 같이, 동작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 재료를 제작, 보급하는 일;
- 6) 위에서 언급한 교육 재료 내에서 동작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일;
- 7) 외국 동작의 체계를 예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사진, 고정 화상 또는 활동 화상 등과 같은) 시각 자료를 개발하는 일.

바로 위에서 언급한 이 일곱 가지 사항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연구 대상이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본 연구에서는 앞서 밝혔듯이 왜 외국어 교수/학습에 동작 교육이 필요한지를 이론과 실재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동작 교육과 관련한 언어 교육학자의 입장과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만족하기로 한다.

참고 문헌

- 장한업(1999), 「신체 언어와 외국어—불어 교육」, 『불어불문학 연구』 39.
- Albert, J. L., Py, B.(1984), "Interlangue et conversation exolingue,"
Acquisition d'une langue étrangère. Perspectives et recherches, tome
II, Actes du 5^e Colloque International, Aix-en-Provence.
- Brossard, A. et al.(1984), *La communication non verbale*, Neuchâtel/Paris,
Delachaux & Niestlé.
- Calbris, G., Montredon, J.(1986), *Des gestes et des mots pour le dire*, Paris, Clé
International.
- Calbris, G., Porcher, L.(1989), *Geste et communication*, Paris, Crédif/Didier.
- Faerch, C., Kasper, G.(1980), *Processes and Strategies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Communication*(Available: PIF, Linguistics,
Copenhagen University, Denmark).
- Jakobovits, L. A.(1970), *Foreign Language Learning*, Rowley Massachusetts,
Newbury House Publishers.
- Paccout, N.(1991), *Le langage des gestes*, Paris, Marabout.

L'importance des gestes dans la classe de langue étrangère

Han-Up Jang

L'importance des gestes est reconnue depuis longtemps. La rhétorique classique avait déjà consacré aux rôles de la voix et de l'expression corporelle une grande place dans l'art oratoire. Les gestes ont fait d'ailleurs l'objet de recherches dans divers domaines d'étude tels que l'éthologie, l'anthropologie, la psychologie. Les linguistes et les didacticiens n'ont montré leur intérêt aux gestes que relativement tard, car ils se sont enfermés trop longtemps dans le *royaume linguistico-linguistique* d'une perspective restreinte à l'étude de la langue saussurienne et de celle du "locuteur-auditeur idéal" de Chomsky. Pour sortir de ce royaume, il a fallu attendre les linguistes de l'énonciation, des actes de langage, de l'analyse conversationnelle ainsi que les sociolinguistes. Ils ont tous contribué à ouvrir largement la prise en compte des conditions concrètes d'utilisation de la langue. Ainsi, les gestes ont commencé à entrer peu à peu dans la didactique des langues, et avec le concept de compétence de communication qui est devenue un concept didactique vert bral, ils disposent désormais d'une place

incontestée dans le champ. Mais “cette place incontestée” ne signifie pas que tous les enseignants se rendent compte de l'importance des gestes, et que tous les problèmes de l'enseignement des gestes soient résolus une fois pour toutes. Il y a encore des enseignants qui ne savent pas pourquoi et comment il faut traiter les gestes dans la classe de langue, et beaucoup d'interrogations telles que “Qu'est-ce qu'un geste?” “Où commence-t-il et où finit-il?” “Comment l'isole-t-on pour l'étudier de manière rigoureuse?” etc. restent sans réponses.

Dans cet article, j'essaierai d'aborder le premier problème: pourquoi doit-on enseigner/apprendre les gestes dans la classe de langue étrangère? Le deuxième problème étant d'ordre méthodologique beaucoup plus complexe, je le laisse de côté pour le moment.

Je pense qu'il y a, au moins, trois raisons ou avantages de traiter des gestes natifs dans la classe de langue étrangère: ils font partie de la compétence de communication, un des objectifs principaux de l'enseignement/apprentissage des langues; ils constituent la “dernière” stratégie de communication; ils peuvent motiver les apprenants par leur caractère ludique et par leur nouveauté.

Pour terminer, je voudrais rappeler la position des didacticiens par rapport à l'enseignement des gestes et des avantages de cet enseignement. Selon G. Calbris et L. Porcher(1989), la position des didacticiens est donc celle d'un intermédiaire entre les spécialistes des gestes, d'une part, et des enseignants d'autre part. La fonction scientifico-technologique du didacticien consiste à proposer des articulations entre ces deux types de pratiques. Ce travail du didacticien comme technologue peut avoir plusieurs avantages pédagogiques:

- 1) Donner aux enseignants les moyens conceptuels et les instruments

d'analyse nécessaires pour repérer les systèmes de la gestualité dans une culture donnée et chez un individu donné ;

- 2) Leur donner l'équipement conceptuel adéquat pour que dans l'enseignement des langues étrangères, les articulations des gestes et des langues soient construites opératoirement et progressivement ;
- 3) Établir un répertoire des erreurs gestuelles possibles, comme il y a des erreurs linguistiques, et proposer les moyens ou techniques permettant de les corriger de manière constructive ;
- 4) Proposer des programmes de formation, initiale et continue conduisant à ce type de compétences. Rappelons que c'est toujours à travers la formation même des enseignants que l'on a une chance de diffuser l'enseignement des gestes qui aille effectivement jusqu'aux apprenants ;
- 5) Contribuer à élaborer des instruments pédagogiques se donnant pour objectifs l'apprentissage des gestes de la culture-cible : manuels, dictionnaires, cahiers d'exercices, documents, etc. ;
- 6) Étudier systématiquement la manière dont les gestes sont traités dans les instruments pédagogiques cités dessus ;
- 7) Développer les documents visuels (dossiers, photos, images fixes et animées) exemplifiant le système des gestes d'une société donnée.

열쇠어: 외국어 교수/학습, 동작, 의사 소통 능력, 의사 소통 전략, 동기 부여.